

슈틸리케호, 카타르전 컨디션 유지 관건

내달 13일 라마단 기간 겹쳐 밤 10시 키오프 훈련시간 탄력 조정·이라크전서 적응 연습

카타르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원정경기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의 늦은 밤 시간대 경기 적응이 승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다음 달 13일 밤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14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카타르와 월드컵 최종예선을 치른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은 무슬림(이슬람교도)의 단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이다. 올해는 라마단이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이고, FIFA A매치 데이는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여서 겹친다. 이슬람교는 라마단 기간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이나 음료수도 마시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 식사가 점심에 문을 닫고 관공서, 은행 업무시간도 2~3시

간 단축된다. 낮 시간대 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 때문도 있지만 라마단 기간 현지인들이 주로 일몰 후에 활동하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심야로 늦춰졌다. 카타르전에 나서는 대표선수로서는 여섯 시간의 시차는 물론 밤 시간대 경기에도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과제가 될 셈이다. 이에 따라 슈틸리케호는 선수들이 밤 시간대 경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카타르와 월드컵 최종예선을 1주일여 앞두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이라크와 평가전을 벌이는 것도 현지 날

씨와 시차, 밤 시간대 경기를 고려한 워밍업 차원이다. 이라크와 평가전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밤 9시(한국시간 8일 오전 3시)로 잡았다. 대표선수들이 카타르전과 비슷한 환경을 미리 경험해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평가전이 라마단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아직 경기장을 확정하지 못했다. 경기장 운영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축구 대표팀 관계자는 "이번 카타르와 원정경기는 무더위와 밤 시간 경기, 시차와의 싸움이 과제가 됐다"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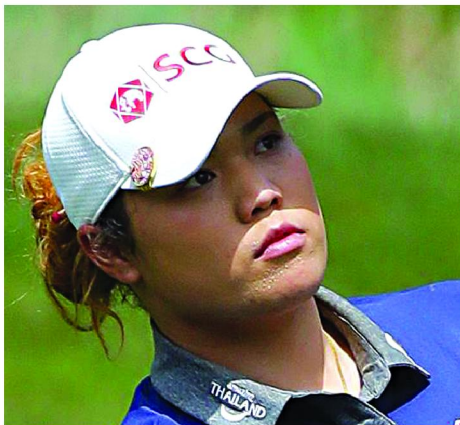


제21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계주 금메달을 차지한 광주시청 송만석, 최민석, 김국영, 임희남(왼쪽부터).

광주시청 김국영 실업육상 2관왕

400m계주 금메달 200m 은메달

광주시청 김국영이 제21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국영은 23일 예전에서 열린 대회 남자 400m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m에서는 은메달을 기록했다. 400m계주에 나선 광주시청 송만석, 최민석, 김국영, 임희남은 40초20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40초48의 서천군청, 3위는 40초83의 국군체육부대가 차지했다. 김국영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이후 처음 출전한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국영은 20초92로 이재하(서천군청 20초8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풍속은 초속 0.3m 뒷바람이었다. 신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이 그동안 100m기록에 집중하느라 200m는 뛰지 않았는데 오늘 컨디션 점검차 참가해 팬층은 기록을 냈다"며 "당분간 200m는 대회 컨디션에 따라 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청은 24일 여자100m허들(정혜림)과 남자1,600계주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최진화 기자



쭈타누깐-유소연 '1위 경쟁' 리턴매치

블빅챔피언십 격돌...리디아 고 결장에 양자대결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유소연과 3위 에리아 쭈타누깐(태국)이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놓고 리턴매치를 벌인다. 둘은 오는 26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트래비스 포인트 골프장(파 72)에서 막을 올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블빅 챔피언십에 나란히 출전한다. 둘은 22일 끝난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세계랭킹 1위 도전에 나섰다. 유소연은 현역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

(뉴질랜드)와 똑같은 공동10위, 쭈타누깐은 공동18위에 그쳐 추월에 실패했다. 셋은 세계랭킹 포인트에서 간발의 차이로 1~3위에 포진했다. 1위 리디아 고와 3위 쭈타누깐의 점수차가 0.22점에 불과하다. 한차례 대회 성적만으로도 셋의 순위가 바뀔다. 유소연이나 쭈타누깐이 블빅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단박에 세계랭킹 1위가 된다. 리디아 고는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양자 대결이다. 리디아 고는 3주 연속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유소연은 그린 적중률 1위를 바탕으로 상급랭킹 1위, 평균타수 1위, 그리고 올해 들어 한번도 톱10 밖으로 밀린 적이 없는 안정감에서 발군이다. 쭈타누깐 역시 우승은 없어도 상급랭킹 3위를 달릴만큼 안정된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 우승을 차지했던 대회다. 올해 준우승 3차례를 차지한 전인지는 다시 한 번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전인지 못지않게 우승 문턱을 부지런히 넘본 허미정과 새 캐디를 시험하고 있는 슈퍼루키 박성현도 주목된다. 매치플레이 퀸으로 거듭난 김세영은 시즌 2승을 노린다.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완승을 거둬 4번타 논란을 떨쳐낸 렉시 톱프스(미국)은 2주 연속 우승을 겨냥해 출사표를 냈다. 이번 시즌에 우승을 신고한 선수 가운데 국내 복귀를 선언한 장하나를 비롯해 양희영, 박인비, 이미림, 이미림, 그리고 크리스티 커는 출전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막지마 23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AT&T 센터에서 열린 2016-2017 NBA 플레이오프 서부콘퍼런스 결승 4차전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케빈 듀란트(맨 아래)와 손 리빙스턴(맨 위)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파우 가솔(가운데)의 슈를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 김성근 감독 전격 경질...이상군 대행 체제

한화 이글스가 김성근 감독(75)을 전격 경질했다. 한화는 23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를 앞두고 김 감독이 사령탑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한화 구단은 "김성근 감독이 21일 홈 경기 종료 후 구단과 코칭스태프 측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지만, 사실 구단이 김성근 감독의 경질 절차를 밟았다. 구단은 21일 대전 삼성 라이온즈전이 끝난 뒤 팀 훈련을 하려는 김성근 감독에

게 "일요일 경기가 끝난 뒤 훈련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했다. 김 감독은 "이런 상황이면 감독으로 더 일하기 어렵다"고 맞섰고, 한화 구단은 본격적으로 김성근 감독을 내보낼 준비를 했다. 구단은 코치들 모아놓고 '감독 대행'을 정했다. 김광수 수석코치가 이를 거절하자 이상군 투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알파고, 세계랭킹 1위 커제에 첫관 완승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중국 바둑의 자존심 커제 9단을 첫관부터 무너뜨렸다. 알파고는 23일 중국 저장성 우전의 국제인터넷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둑의 미래 서밋'(Future of Go Summit) 3분기 1차전에서 중국 바둑랭킹 1위 커제 9단에 게 289수 만에 백 1집 반승을 거뒀다. 커제 9단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이자, 세계랭킹 1위로 인정받는 인간 최고수다. 그러나 알파고는 한 번도 흐름을 커제 9단에 내주지 않으며 완벽히 기선을 제

압했다. 최종 결과가 1집반 차이지만 바둑 내용은 알파고의 완승이었다.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이세돌 9단과 벌인 '구글 챌린지 매치'에서 4승 1패로 승리하며 바둑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1년 2개월의 업그레이드로 알파고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알파고와 커제 9단은 25일 2국에 나선다. 3분기 최종국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내 점수는 70점...더 전진하겠다"

손흥민, 어제 귀국 25일까지 한국행사 참가

유럽 무대 한국인 시즌 최다 골을 기록한 손흥민(토트넘)이 금의환향했다. 손흥민은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일 워커, 케빈 비버, 벤 데이비스 등 팀 동료 세 명과 함께 귀국했다. 이날 공항 출국장엔 토트넘 한국팬 수십 명이 찾아 토트넘 응원가를 부르며 손흥민 등을 반겼다.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이 한국에 간다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팬이 나와서서 기가 산다"라며 웃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글로벌 메인 스폰서인 AIA 그룹의 초청으로 팀 동료들과 귀국했고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4골 6어시스트로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는 처음으로 공격 포인트 20개를 달성했다. 아울러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대회 등에서도 득점을 쏟아내며 시즌 21골을 넣어 차범근이 보유했던 유럽 무대 한국인 시즌 최다 골(19골)을 넘어섰다.



다음은 손흥민과 일문일답이다. -을 시즌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내게 100점이란 점수는 없다. 메시나 호날두급이나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올 시즌은 행복했지만,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내게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 -너무 적은 점수 같은데.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100점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더 배워야 한다. -차범근 감독의 기록을 깰텐데. ▲차범근 감독님의 존함이 거문때 죄송하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직접 차범근 감독님의 현역 시절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알고 있다. 차 감독님은 어려운 시기에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셨다. 내 기록도 깨질 것이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골이 있는가. ▲올 시즌 모든 골이 소중한데, 기억에 안 남는 골이 없다.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고 극장 골을 넣기도 했다. 순위를 매기기 힘들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특히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응원해주신 팬과 동료들이 없었다면 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올 시즌이 끝난 뒤 어떤 생각이 들

었다. ▲할 시티 전을 끝내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 새벽 5시까지 못 잤다. 매우 감사한 시즌이었고, 배울 것이 많았던 시즌이었다. -우승을 못 해 아쉬움도 있을 텐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우승을 못 해 아쉽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 컵이나 프리미어리그나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다. 그래도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 내년 시즌엔 올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꼭 한번 들고 싶다.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한창이다. ▲기니 전을 봤다. 신대용 감독님께 응원 드린다고 연락을 드리기도 했다. 후배들이 잘하더라. 걱정하지 않는다. 짐작하게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조별리그 3차전 잉글랜드전을 직접 가서 보고 싶었는데, 홍콩에서 하는 이벤트 경기에 참가해야 해 못 가게 됐다. 아쉽지만 TV로 열심히 응원하겠다.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카타르전에 관한 각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시리아전에서 이겼지만,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다. 정규리그가 끝났지만, 몸 상태를 유지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번 대표팀엔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뽑혔다. ▲대표팀 선수들이 조기에 모이게 됐다. 호흡 맞춰볼 시간이 길어졌다.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연합뉴스